

50+세대 이웃관계 형성 활동의 노인 커뮤니티 케어 기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방학서클 사례를 중심으로

김희경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연구주체가 되어
50+세대의 현장 중심의 구체적 이슈와 삶의 목소리가
담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의 성과를
엮은 것으로 참여한 연구진의 고민과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50+세대 이웃관계 형성 활동의 노인 커뮤니티 케어 기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방학서클 사례를 중심으로

김희경

목차

요약	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과 내용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내용	5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커뮤니티 케어	7
1.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7
2. 노인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복지관의 역할	8
제2절 이웃관계	9
1. 이웃관계와 지역사회복지	9
2. 50+세대의 지역사회 상호작용으로서의 이웃관계	10
제3장 연구방법 및 사례연구	13
제1절 방학서클	13
1. 사례 대상 선정과 연구의 한계	13
1) 사례 대상 선정	13
2) 연구의 한계	13
2. 사례 대상 사업 배경과 특성	13
1) 사업 배경	13
2) 사업 특성	15

제2절 도봉지역 노인 커뮤니티 케어 현황	17
1. 도봉지역 현황	17
1) 도봉지역 기본 현황	17
2) 도봉지역 노인복지 현황	18
2. 도봉지역 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특징	18
1) 고령친화도시	18
2) 보편적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19
3) 시민사회의 발달과 민관협력 활성화	19
제3절 방학서클 사례 연구	20
1. 집중 인터뷰 대상 선정과 질문내용	20
1) 집중 인터뷰 대상 선정	20
2) 질문내용	21
제4장 연구 결과	25
제1절 인터뷰 결과	25
1. 방학서클 정회원 인터뷰 결과	25
1) 인터뷰 대상(방학서클 정회원)의 일반적 특성	25
2) 인터뷰 대상(방학서클 정회원)의 동네와 이웃에 대한 생각	26
3) 인터뷰 대상(방학서클 정회원)의 활동 현황	27
4) 인터뷰 대상(방학서클 정회원)의 활동 참여로 인한 변화	29
2. 방학서클협동조합 조합원 인터뷰 결과	30
1) 인터뷰 대상(조합원)의 방학서클 활동 이후 변화	30
2) 인터뷰대상(조합원)의 방학서클협동조합 설립 이후 변화	31
3. 방학서클 활동지원 사회복지사 인터뷰 결과	32
1) 방학서클 활동지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32
2) 방학서클 활동지원에서 어려운 점	33
제2절 방학서클 활동의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시사점	34
1. 이웃관계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	34
2. 주민참여 지원조직의 존재	35
3. 50+세대의 돌봄 분야 협동조합 조직	36
제3절 발전과제	37
제5장 결론 및 제언	39
참고문헌	41

표 목차

[표 3-1] 도봉지역 노인인구 추이	17
[표 3-2] 도봉구 돌봄SOS센터 추진실적	19
[표 3-3] 방학서클 정회원 대상 질문내용	21
[표 3-4] 방학서클협동조합 임원 대상 질문내용	22
[표 3-5]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대상 질문내용	22
[표 3-6] 돌봄 유관단체 실무자 질문내용	23
[표 4-1] 방학서클 정회원의 일반적 특성	26
[표 4-2] 방학서클 정회원의 활동 현황	2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절차	4
[그림 3-1] 방학서를 사업 구조도	16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정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 이웃관계망이 촘촘해지는 지역공동체는 커뮤니티 케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복지관은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자 주민참여 기반의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바, 최근 50+세대 사회참여의 장으로 돌봄 공동체 사업을 펼쳐온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방학서클' 사례에 주목함
- 방학서클은 이웃관계 중심의 소모임 활동으로, 방학서클 안에서 주도적인 돌봄 주민 주체로서 역할 중인 50+세대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참여자들의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노인 커뮤니티 케어 정착에 있어 이웃관계와 돌봄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에서 50+세대가 돌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들에게 적합한 자리를 탐색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사회복지, 이웃관계, 50+세대의 노화 인식과 이웃관계 형성 활동을 정리함
- 방학서클 사업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자(회원, 조합원)와 내·외부 실무자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도봉지역 커뮤니티 케어 현황과 방학서클 사례 특징을 파악함

□ 연구 결과

- 방학서클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을 중심으로 50세 이상 주민들의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으로, 회원조직과 더불어 이를 지원할 돌봄 주민주체로서 방학서클협동조합을 조직한 사례임
- 도봉구의 특징으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3년 사이 노인복지사업의 양적 증가를 확인함. 특히 WHO 고령친화도시로 재인증, 보편적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시민사회의 발달과 민관협력이 활성화되어 있음
- 방학서클 회원의 참여로 인한 주요 변화로는 ‘건강에 도움’, ‘활동거리가 생김’, ‘이웃관계 형성’으로 나타났고, 조합원의 방학서클 활동 이후의 생활의 변화로는 ‘동네에 아는 어른이 생김’, ‘내 가족 외의 주변을 살핌’, ‘마을에 관심’ 등으로 표현함
- 방학서클 활동 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이웃관계 중심의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이라는 점과, 둘째 지원조직의 존재로서 활동 주체 역시 사전에 교육받은 주민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50+세대가 주축이 되어 돌봄 활동을 펼치는 일반협동조합으로 조직된 점임
- 이처럼 방학서클은 평범한 주민들, 특히 50+세대의 돌봄 활동 참여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로서 비전문적 활동거리에서 지역사회 일거리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함. 따라서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큰 조합원들의 사회적 활동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유관 단체들의 협력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시행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3년 뒤면 65세 이상 내국인이 1천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통계청, 2022)
 - 이에 따라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백 명 당 노인 부양비는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케어 지출 증가에 대비하고 국민의 돌봄 불안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4년 차에 접어들(보건복지부, 2020)
 -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임(보건복지부, 2018)
 - 서울시도 2019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 돌봄SOS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으로,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이 주 대상으로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음
 - 또한 2020년 1월부터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기본돌봄, 종합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

사회자원연계)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하여 사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케어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고, 주민들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가 돌봄 당사자들에게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공간이 되어야 함(김용득, 2018)
- 사회적 돌봄이 확대되어 이웃 간 관계망이 촘촘해지는 지역공동체는 커뮤니티 케어의 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공동생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김은정, 2015)
-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 봉사,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대 분포를 보면, 50세 이상의 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50+세대의 특징은 가족 규모가 작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하며, 노후생활에 있어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높음(정재한, 김형성, 2016)
 - 기존 연구에서도 삶의 전환기에 처한 50+세대는 단순한 취미활동의 연장보다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동기가 강한 것으로 파악됨(한성호 외, 2020)
- 한편, 지역에서 주민조직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50+세대의 사회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하 방아골복지관)은 1998년 개관 이래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지역복지라는 이슈를 가지고 주민공동체를 조직하는 일에 매진해왔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되어 왔음(신명호, 2012)
 - 방아골복지관의 여러 주민조직 사업 가운데, 2021년 시작한 ‘방학서클’은 50+세대인 장년층을 중심으로 노인 커뮤니티 케어 영역에서 주민참여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음¹⁾
 - 방학서클은 영국 파티서플 단체의 서클 활동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업으

1) 서울시복지재단(2021)의 ‘서울형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연구(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방아골복지관의 방학서클 사례가 일부 언급되기는 하지만, 사업 초반에 진행된 연구로 참여자들의 변화나 평가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

로, 관계 복지를 앞세워 노인 세대의 이웃관계 형성을 도와 마을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개발 중임

- 특히 기존의 주민조직 사업들이 동아리, 봉사 등 비슷한 욕구나 관심 중심의 관계나 세대별 모임 형성에 그쳤다면, 방학서클은 장년층을 비롯하여 고령층까지 아우르는 활동이자 지원조직으로서 협동조합까지 조직한 사례임
 - 이에 사업을 기획한 실무자로서 과연 방학서클 사업이 실제 참여자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통한 성찰 과정이 필요했음
- 그동안 노인 커뮤니티 케어 분야 연구는 국내외 정책을 비교분석하거나 자생적 사회적경제조직의 사례 연구 중심이었음(김영란 외 2명, 2013; 김윤영, 윤혜영, 2018; 변정원, 2009; 서현보, 2020)
- 장년층과 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역시 50+세대 일차 리로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사회 관계망에 주목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음
 -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관이 50+세대가 이웃관계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커뮤니티 케어 분야 활동 사례의 경험적 실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2. 연구 목적

- 50+세대를 중심으로 이웃관계 형성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학서클 돌봄 공동체 활동의 특징을 살펴봄
-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된 지역공동체와 이웃관계의 중요성을 이론적 토대를 정리함
 - 방학서클의 조직 배경과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해보고, 활동 내용에 따라 참여자, 활동가, 지역사회에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봄
- 방학서클 사례를 통해 노인 커뮤니티 케어 분야에서 50+세대의 활동 역량에 주목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도전적 실천 방법을 제안함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사회복지, 이웃관계, 50+세대의 노화 인식과 이웃관계 형성 활동을 정리함
 - [그림 1-1]과 같이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살펴봄
 - 이웃관계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성을 통해 50+세대의 이웃관계 형성 활동이 갖는 의미를 찾아봄
- 방학서클 사업 이해당사자별 조사 문항을 구성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도봉지역 커뮤니티 케어 현황과 방학서클 사례 특징을 파악함
 - 방학서클 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 사례 연구는 방이골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자료를 참고함
 - 방학서클 정회원 8명과 방학서클협동조합 이사 4명을 대상으로 개별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를 통한 변화를 살펴봄
 - 노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내·외부 유관 단체 실무자 6명(내부 3명, 외부 3명)에 대한 서면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 조사를 병행함

[그림 1-1] 연구 절차



-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이해당사자별 답변의 공통분모를 찾고, 노인 커뮤니티 케어 분야에서 50+세대의 자리와 시사점을 제시함

2. 연구 내용

- 방학서클의 사업 배경, 사업 특성을 파악함
 - 마이골종합사회복지관의 최근 3년간 돌봄사업 추진 흐름을 살펴보고, 영국의 서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21년부터 방학서클 사업에 적용하게 된 배경을 조사함
 - 방학서클 사업 내 관계망 형성을 위해 회원체계 구축, 소모임 조직, 돌봄 주민 주체 형성의 맥락을 파악함
- 도봉지역 커뮤니티 케어 현황을 조사함
 - 도봉지역 노인인구 증가 추세와 복지 현황을 바탕으로 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특징을 크게 고령친화도시, 보편적 돌봄서비스 수요 증대, 시민사회의 발달과 민관협력 활성화로 살펴봄
- 50+세대의 방학서클 활동 참여 이후의 변화를 살핌
 - 방학서클 참여 회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뒤, 활동 참여 후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 이웃관계의 변화의 특징들을 정리함
 - 방학서클협동조합 소속 임원의 방학서클 참여 이후와 조합 설립 이후의 개인적인 변화 상황을 분석함
 - 방학서클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어려운 점을 파악
- 관계 중심 돌봄 활동의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시사점을 밝힘
 - 방학서클의 주요 특성인 이웃관계 기반의 돌봄 공동체 형성 활동으로서의 의미와 지원조직으로서 50+세대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역할에 주목함
 - 돌봄 주민 주체 협동조합으로서 지역 내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기여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함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커뮤니티 케어

1.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 커뮤니티 케어는 말 그대로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포괄하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한정하고자 함
 - 커뮤니티 케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 케어법을 제정하고 탈시설화를 지향하며 지역사회 중심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정비함(전용호, 2012). 일본도 2000년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개호, 생활 지원 및 예방, 거주서비스 등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구축함(강현철, 최조순, 2019)
 -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4대 핵심 중점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이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으로 정의 내리고, 2026년에는 보편적 실행²⁾을 목표로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0)
 - 정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 치매 및 건강보장, 노인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노인 돌봄서비스 역시 커뮤니티 케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보건복지 공급체제는 진화하
-
-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가이드북에는 통합 돌봄이 대상자의 자산조사 없이 욕구에 기반하여 돌봄이 필요한 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보편적 제도로써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는 과정 중 가장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명시함

고 있으나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합적 돌봄 환경을 만들
어가는 사례는 아직까지 쉽게 찾아보기 어려움

-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증가하고 다
각화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는 데 한계가 있음. 여전히 돌
봄 정보를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몰라 개인적으로 자녀, 혹은 주변에 물
어보지만 이마저도 관계망이 부족한 1인 가구는 접근성이 낮음

2. 노인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복지관의 역할

- 사회복지관은 한국 사회복지계의 주요 실천기관으로 1983년 사회복지사
업법 개정으로 공식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외부 복
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2014년 시작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의
전환과 함께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뿐 아니라 나눔이웃, 마을공동체 사
업, 도시재생사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등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이어짐
- 최근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의 시행과 연동하여 사회복지관도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
지고 있음
 - 복지관은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욕구에 기초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
에, 이에 기반을 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유리함. 이미 서울시의 경
우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중 노인종합복지관(4
4%)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27%)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2%를 차
지하고 있음(서울시복지재단, 2020)
 - 김희수(2019)는 사회복지관에 요구되는 민관협력 기반의 통합적 실천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사례를 비교하
여, 돌봄/보건의료/사회복지의 전문 분야 팀 접근, 브랜치 센터(거점)로
접근성 강화, 3대 기능³⁾의 통합적 실천, 고령자에 대한 전략 강화, 지역
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에 대해 제시한 바 있음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을 수행에 해당하는 사업이 제시되어 있음

- 이수연, 이귀옥(2020)은 복지기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와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과 자주 소통할 수록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적어지는 반면, 사회적 지지는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즉시 의료인을 찾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복지기관을 통한 관계 강화가 노인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홍종원(2021)은 서울 강북구 148마을 건강주민운동 사례를 연구하여 커뮤니티 케어는 긴 호흡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한 주체의 확장과 역동이 필요하고, 전문가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포괄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사회복지관은 복지서비스 하위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역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주민을 발굴하고 역량개발과 상호성 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한동우, 2013). 노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서도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촉진하는 활동이 요구됨
- 이와 같이 그동안 사회복지관이 잘 하고 있는 지역 조직화와 주민참여 활동이 커뮤니티 케어 분야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의미함

제2절 이웃관계

1. 이웃관계와 지역사회복지

- 이웃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사회해체이론, 주거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지역 자원으로서 이웃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주민들 간에 신뢰, 호혜적 관계망, 사회적 유대의 형성이 주민들 스스로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자원이자 역량으로 간주됨(곽현근, 2013)
- 이웃관계는 사회 자본과도 연관되며, 주관적 우울감을 감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로도 유의미함(서종녀, 하성규, 2009)
 - 김은정(2015)은 사적 관계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인적 자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제도적, 환경적 기반을 다질 때 돌봄 역량과 지속가능성이 커진다고 봄

- 조미정, 박태영(2016)도 제도적인 돌봄서비스 외에 수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웃 등 주민관계망 형성이 중요하다고 봄
- 공급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는 기능적으로 분류되지만 서비스 당사자인 개인에게는 삶 그 자체로서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지 욕구가 충족됨(민연경, 이명석, 2014).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지역사회와 연계되지 못하면 외로운 자립이 될 수 있음(김용득, 2018)
 -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특히 활동반경과 관계망이 축소되는 노인에게는 일상 안에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필요가 있고, 제공자와 대상자라는 경계를 흐르는 관계 중심의 돌봄 활동이 중요함
-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구분짓지 않는 공동체적 접근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서현보(2020)는 도시 주거지역에서 이웃들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안부 확인과 말벗의 기능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협력체로 볼 수 있음. 특히 고령의 노인 구성원이 대부분인 모임은 별도의 도우미 역할이 필요하고, 주변 지역 모임이나 유관 단체들의 안전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노인들은 주로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고려되나, Hand와 동료들(n,d)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을 돕거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Hand, Laliberte, Rudman, Huot, Pack&Gilliland, 2020, 서현보, 2020에서 재인용)

2. 50+세대의 지역사회 상호작용으로서의 이웃관계

- 50+세대는 인생의 장년기로 고용시장에서는 은퇴를 시작하며, 여성들의 경우 완경기 증상을 겪게 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출가시키고 빈 동지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신체적, 사회·심리적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됨
- 안타깝게도 50+세대와 이웃관계의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음. 다만, 위에서 살펴본 장년기에 어떻게 노년기를 준비하는

- 나에 따라 활동적 노화 또는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 OECD는 1998년,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사회와 경제 체제 속에서 생산적인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2002년 UN 제2차 노령화 세계총회에서 WHO는 활동적 노화의 개념을 ‘사람들이 나이 들에 따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 참여 및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 하는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림. 여기서 ‘활동적’의 의미는 신체적 능력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타인과 가족,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강조한 것임
 - 이처럼 50+세대로서 장년기는 얼마 후 도래할 노년기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데, 성공적 노화 적응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김정희, 박지영, 2015), 사회·여가 활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년기를 영위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이미란, 2019)
 - 노년기가 길어진 은퇴자들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뿐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위한 교육도 필요함(정주영, 이미란, 2021). 지역사회에서 주민교육과 주민 조직화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관이 이러한 역할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인생의 장년기인 50+세대의 두 가지 측면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함. 먼저 50+세대가 이웃관계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돌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로서의 변화를 살펴본 후, 그 활동들이 실제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기여하는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함

제3장 연구방법 및 사례연구

제1절 방학서클

1. 사례 대상 선정과 연구의 한계

1) 사례 대상 선정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2021년 방학서클 사업을 시작함. 방학서클 활동을 시작한 지 일 년이 채 안되어 2022년 3월, 50+세대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면서 선협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 이에 방학서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과 조합원, 그리고 관련 내·외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방학서클이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50+세대의 이웃관계 형성 활동이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방학서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경험적 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즉, 도봉구라는 지역적인 특성,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역할, 조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및 역량 정도 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

2. 사례 대상 사업 배경과 특성

1) 사업 배경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부터 조직편제가 동별로 개편되면서 동

- 중심의 자원발굴과 주민참여사업을 개발해오던 가운데, 2019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로컬랩동네발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됨
- 로컬랩동네발전소사업은 주민 초대와 연결성장을 지원하고, 소지역 중심의 마을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들이 직접 문제해결을 해보는 실험적 사업으로, '동 단위 서로 돌봄 생태계 조성'을 방학1동의 마을 의제로 선정함
 - 사업 1년 차에는 주민이 돌봄 조사원이 되어 돌봄 당사자 19세대의 생활환경과 서비스 현황을 살피며 관찰하는 활동을 3개월 동안 진행함. 2년 차에는 돌봄서비스를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하면서 주민참여 돌봄 활동을 개발함. 주민이 돌봄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달하는 '복지정보통', 주민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기획하고 개인별 욕구사정을 통한 케어 플랜대로 실행해보는 '돌봄장이' 사업을 시범 운영함
 -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활동은 지역사회 잠자고 있던 50+세대의 돌봄 주민 주체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특히 코로나19로 유사 영역에서 강사나 활동가로 역할하던 주민들이 대면 사업들이 중단된 시기에 복지관과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함
- 그러나 돌봄 당사자 입장에서 돌봄 의제는 여전히 수혜자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 그 시기에 마침 『래디컬 헬프』를 접하게 되면서 사업 전환을 꾀하게 됨
- 힐러리 코텀의 서클은 기존 복지서비스의 제공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습/건강/공동체/관계란 4가지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임
 - 학습: 탐구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능력
 - 건강: 내적, 신체적 활력
 - 공동체: 지역사회 수준과 전 지구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기여, 변화를 일으키거나 어떤 것을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
 - 관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긴밀하게 서로 돕는 연결망으로, 다른 역량에 비해 가장 중요함
- 이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돌봄 당사자들의 관계 형성을 위한 일상적 교류의 장으로 '방학서클'을 시범 운영하여 '서로 돌봄' 활동 체계를 구상하는 한편, 이를 지원할 돌봄 주민 주체 조직화를 진행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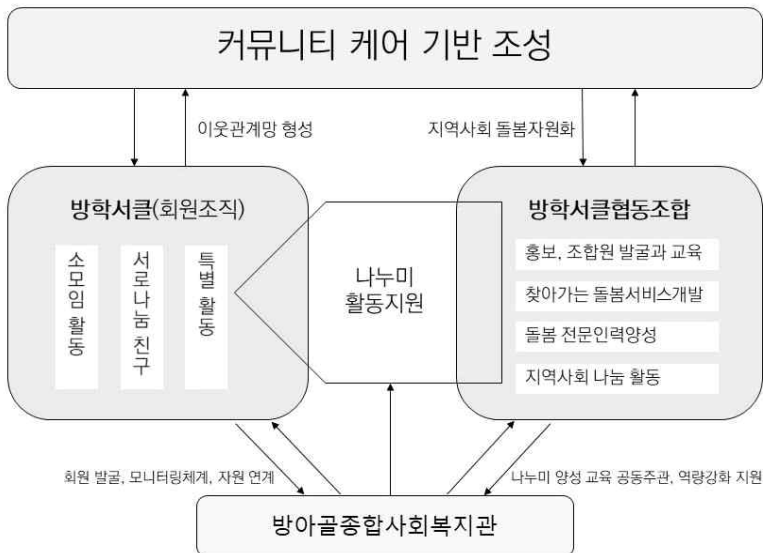
2) 사업 특성

- 먼저 회원조직으로서 방학서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사업의 대상은 도봉구 방학1동을 중심으로 하되, 주변 동에 거주하더라도 참여를 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연령대는 50대 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하나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2022년 7월 현재, 방학서클 회원 규모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포함하여 29명이고, 지원하는 '나누미'⁴⁾는 7명임. 1년 사이에 가입과 탈퇴가 30여 명으로 상쇄하여 현재 규모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회원체계는 정회원, 준회원, 대기자로 구분됨. 신청을 받으면 대기자로 접수되며,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함. 회원가입을 하면 다음 달부터 월 회비 5천 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주 1회 운영되는 소모임 활동 외에도 봉사활동, 추억사진촬영, 영화감상, 공예 등 월 1회 운영되는 특별활동이 있음. 또한 회원 전체가 만나는 '놀이터' 등 회원 만남의 장도 연 2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운영함
 - 회원모니터링을 체계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회원별 담당자가 월 2회 안부 확인 전화를 드린 후 이를 기록하며, 활동 내용을 A3 소식지에 담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이 밖에 모임별 일상적인 소통 창구로 SNS를 활용하기도 함
 - 이와 동시에 돌봄 주민 주체 형성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예비활동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방학서클 소모임 시범 활동을 지원할 스텝 12명을 선발함
 - 스텝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소모임을 제안하였고 이에 관심 있는 중고령 주민들을 매칭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소규모로 동네걷기, 숲 산책, 공예, 키오스크(무인기계), 핸드폰 배우기, 텃밭 모임을 운영함
 - 하반기 5개월 동안 스텝 후속 모임을 운영하면서 방학서클의 지속가능성을 주민과 함께 모색하였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습을 병행하며 2021년
-
- 4) '나누미'란 방학서클 회원 소모임을 지원하는 주민활동가를 지칭하며, 초기 스텝이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회원들이 스텝에 의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고 서로 돌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활동가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함

말, 17명의 설립동지자를 바탕으로 일반협동조합으로 방학서클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가짐

- 방학서클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나누미양성과정’이란 돌봄 활동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함. 조합 임원 구성으로는 6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있고, 조직 운영은 이사회, 사업팀별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사업팀은 연구개발팀, 홍보마케팅팀, 돌봄사업팀으로 구성됨
- 주요 사업으로는 나누미양성교육사업, 방학서클 회원 소모임 지원활동, 찾아가는 재가 돌봄서비스 개발이 있고, 향후 강사양성과정을 전문 자격 과정으로 준비하는 계획이 있음
- 방학서클 사업 내 회원조직과 지원조직으로서 방학서클협동조합,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과의 관계는 [그림 3-1]과 같음

[그림 3-1] 방학서클 사업 구조도



제2절 도봉지역 노인 커뮤니티 케어 현황

1. 도봉지역 현황

1) 도봉지역 기본 현황

- 도봉구는 서울 동북부의 관문으로, 북으로는 의정부시가 있고, 서에는 강북구, 동으로는 노원구와 인접해 있으며, 북한산국립공원이 위치하여 녹지가 전체면적의 절반(49.2%)을 차지함. 도봉구의 인구는 2022년 1월 기준 317,366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번째로 높은 인구분포를 보임

[표 3-1] 도봉지역 노인인구 추이

연도	전체 인구수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65세~79세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노인 수
2015	353,241	48,590	8,293	2,690	1,678	846
2016	350,272	50,510	8,067	2,534	1,548	845
2017	346,234	53,488	8,502	2,826	1,647	897
2018	341,649	55,964	9,037	3,124	2,438	926
2019	335,631	58,714	9,728	3,679	2,797	910
2020	327,361	62,059	10,287	2,693	3,296	875

출처: 도봉통계연보(2020)

- 도봉구의 노인인구 현황은 [표 3-1]와 같이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독거노인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도 높아져 빈곤 노인이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 2022년 대한민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7.5%, 서울시 전체 고령인구는 1,628,980명으로 평균 고령화율은 16.7%이고, 강북구 21.6%, 도봉구 20.5%, 중구 18.8% 순으로 높게 나타남(서울통계, 2022)
 - 서울시 자치구별 유소년 1백 명 당 노인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도봉구가 강북구, 중구, 관악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율임

2) 도봉지역 노인복지 현황

- 도봉구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는 노인장애인과로 노인복지를 총괄하고 있음.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2019년은 ①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②노인 일자리 사업, ③노인의 날 및 경로미 달 행사 추진, ④노인단체 지원, ⑤노인돌봄서비스, ⑥기초연금 지급, ⑦도봉실버센터 운영, ⑧권역별 구립 어르신 복지관 운영, ⑨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관리가 있음(도봉구, 2020)
 - 2020~2021년 부서명도 노인장애인과가 어르신장애인과가 됨. 주요사업으로는 ①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②어르신 일자리 지원, ③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④기초연금 지급, ⑤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 ⑥‘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 도봉’ 조성, ⑦50+세대 활동 지원⁵⁾, ⑧어르신 복지시설 확대 및 개선, ⑨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⑩도봉통합복지센터 건립, ⑪‘창동 어르신 복지관’ 신축, ⑫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관리, ⑬노인의 날 및 경로미 달 행사 추진임(도봉구, 2022)
- 사업이 9개에서 13개 분야로 양적으로 늘어났고, 신규사업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⁶⁾과 50+세대 활동 지원,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특징으로 볼 수 있음

2. 도봉지역 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특징

1) 고령친화도시

- 도봉구는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래, 2022년 1월 재인증을 받음. 서울시가 2013년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회원가입 이후, 2022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37개 지자체가 가입함.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가입되어 있음(강북, 양천, 도봉, 노원, 서초, 성동, 종로, 용산, 금천, 영등포, 마포)⁶⁾
 -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를 의미하는데, ①외부환경과 시설, ②교통수단 편의성, ③주거환경 안정성, ④여가

5) 2020년 50+재단 북부플러스센터가 도봉구 창동에 개소함

6) 고령친화서울(2022.2.24). WHO GNAFCC 국내가입현황(2022년 2월). https://afc.welfare.seoul.kr/afc/frontViewForm.do?seq=39&sys_id=BBS

및 사회활동, ⑤사회참여와 일자리, ⑥사회적 존중 및 통합, ⑦의사소통 및 정보, ⑧건강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이란 8개 분야별 계획 수립요건을 충족해야 함

- 도봉구는 2018년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민관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고령생활환경 편의 증진, 어르신 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국제교류 활성화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함

2) 보편적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 도봉구는 서울시 돌봄SOS센터 추진에 따라 2020년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만 50세 이상 구민 및 만 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신청받고 있음
- 수가체계의 5대 돌봄서비스로는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이 있고, 비수가체계는 안부 확인, 건강지원, 돌봄 제도, 사례관리, 긴급 지원 연계가 있음
- [표3-2]를 보면, 서비스가 시작된 2020년에 비해 이듬해인 2021년 서비스 수행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하였음. 사업 홍보의 결과이자 그만큼 돌봄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음

[표 3-2] 도봉구 돌봄SOS센터 추진실적

연도	계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돌봄 연계
2020	1,005	187	1	52	146	277	342
2021	6,571	731	2	371	645	1,061	3,761

출처: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3) 시민사회의 발달과 민관협력 활성화

- 도봉구는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적 특징이 있으며, 더나은도봉

7) 도봉구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단체가 1990년대부터 활발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오며, 지역의

시민협력네트워크(도봉구시민협력플랫폼)란 단체의 사회적경제분과에서 2021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중간지원조직인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도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돌봄분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

- 한편, 도봉구는 '2021년 복지행정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부문'에서 대상을 받음. 복지행정상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발굴연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됨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9년부터 동 단위 '서로돌봄민관협력네트워크'란 이름으로 도봉구청 돌봄지원팀을 포함하여 15개 공공과 민간 영역의 돌봄 유관 단체들의 정기적인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로컬랩동네발전소 사업과 연동하여 동 단위 돌봄 의제 수립과 솔루션 도출 과정을 네트워크 참여 실무자들과 함께 진행한 바 있으며, 2021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모임을 지속해오면서 돌봄 자원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돌봄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봉지역은 주민들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뚜렷한 변화를 느낄만한 환경은 아니지만,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민관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토대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이 가운데 방학서클 사례 연구는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케어의 가능성을 선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제3절 방학서클 사례 연구

1. 집중 인터뷰 대상 선정과 질문내용

1) 집중 인터뷰 대상 선정

- 본 연구는 방학서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가운데, 방학서클

주요 현안에 대응해 온 역사가 있음. 초안산 골프 연습장 건설 반대, 의정부 부당인상 반환 주민소송 등 시민사회가 직접 지방의회와 지방정치를 견제해 옴

- 정회원 8명, 방학서클협동조합 임원 4명,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3명, 돌봄 유관 단체 실무자 3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을 대상으로 함
-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개월 이상 소모임에 주기적으로 활동 경험이 있는 방학서클 정회원 8명을 선택하여 진행함
 - 방학서클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총 17명으로, 이 중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주민조합원은 14명임. 50+세대로서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7명의 임원 가운데 4명의 이사를 선택하여 진행함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1팀에서 방학서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오고 있는 사회복지사 A, B, C가 해당됨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동 단위 서로돌봄민관협력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 중인 단체의 실무자 3명에게 요청드림(A 지역자활센터, B 재가노인지원센터, C 어르신복지관)

2) 질문내용

- 방학서클 정회원 대상 질문내용은 [표 3-3]과 같이, 인적사항, 동네에 대한 생각, 방학서클 활동에 대한 생각을 살펴봄

[표 3-3] 방학서클 정회원 대상 질문내용

주제	질문내용
인적사항	· 성별, 연령, 학력, 가족구성, 거주형태, 동네거주기간
동네에 대한 생각	· 동네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 지역발전
방학서클 활동	· 가입동기, 활동기간, 활동내용 · 가장 만족스러웠던 내용과 이유 · 활동 이후 생활의 변화, 이웃관계의 변화 · 활동을 왜 계속하고 싶은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 활동이 다른 기관/센터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가족/동거인/주변의 생각 · 방학서클에 바라는 점이나 문제점

- 방학서클협동조합 임원 대상으로 1:1 개별 면담 인터뷰를 진행함. 인적사항과 동네에 대한 생각을 먼저 질문하고, 방학서클 활동에 대해 질문할 때에는 방학서클 활동과 조합 활동을 구분하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표 3-4] 방학서클협동조합 임원 대상 질문내용

주제	질문내용
인적사항	· 성별, 연령, 학력, 가족구성, 거주형태, 동네거주기간
동네에 대한 생각	· 동네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 지역발전
방학서클 활동	· 방학서클 활동 이후 변화, 이웃관계의 변화 · 가장 만족스러웠던 내용과 이유 · 방학서클에 바라는 점이나 문제점
방학서클협동조합	· 조합 설립 이후 변화(생각/생활/관계 등) · 조합 활동을 왜 계속하고 싶은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 조합 활동이 지역사회복지에 기여 · 조합에 바라는 점이나 문제점

- 방학서클 활동을 실제 기획하고 직접 운영·지원하는 사회복지사 3명의 경우, 상급자인 연구자의 질문에 최대한 솔직한 답변을 듣기 위해 서면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표 3-5]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대상 질문내용

주제	질문내용
방학서클 사업	· 방학서클 활동 지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 방학서클 활동의 주요 성과 · 방학서클 활동의 차별점 · 방학서클 활동 지원에서 어려운 점/고민 점
방학서클협동조합	· 방학서클 협동조합과의 연계 · 방학서클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제언

- 돌봄 유관 단체 실무자의 경우, 실무자의 선호에 맞추어 대면 인터뷰 1인, 나머지 2인은 서면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표 3-6] 돌봄 유관단체 실무자 질문내용

주제	질문내용
노인 커뮤니티 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봉지역 노인의 특성과 욕구 · 도봉지역 노인 커뮤니티 케어 자원 · 지역사회 내 노인 커뮤니티 케어 문제 ·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단체와 구체적인 사례
방학서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서클 활동에 대한 기대와 제언
방학서클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서클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제언

- 질문내용은 [표 3-6]과 같이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각 단체의 특성과 도봉지역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해, 방학서클과 방학서클협동조합에 대한 견해를 파악해보는 것으로 구성함

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인터뷰 결과

1. 방학서클 정회원 인터뷰 결과

1) 인터뷰 대상(방학서클 정회원)의 일반적 특성

- 방학서클 집중 인터뷰 대상은 [표 4-1]과 같이, 여성 6명, 남성 2명이며, 연령은 50대 1명, 60대 2명, 70대 2명, 80대 3명임
- 도봉구 거주기간은 대체로 긴 편으로 20년 이상이 절반이었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명임. 거주 형태는 단독주택 1명을 제외하고는 7명 모두 다세대/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 가구 구성은 1인 가구가 5명, 부부 세대 1명, 자녀나 손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회원이 2명이었음. 방학서클의 목적이 1인 가구의 이웃관계망 형성에 있는 만큼 사업 취지와 연결된 결과로 보임
- 학력은 무학이 4명으로 절반이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고령인 80대의 경우가 많았고, 초졸 1명, 고졸 1명, 대졸이 2명으로 학력 스펙트럼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

[표 4-1] 방학서클 정회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도봉 거주기간	거주형태	가구구성	학력
가	여	6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다세대/빌라	1인	대졸
나	여	70대	20년 이상	다세대/빌라	부부	초졸
다	남	50대	20년 이상	다세대/빌라	1인	대졸
라	여	80대	20년 이상	단독주택	1인	무학
마	여	8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다세대/빌라	1인+자녀	무학
바	여	80대	10년 이상~ 20년 미만	다세대/빌라	본인+ 자녀+손자/녀	무학
사	남	70대	20년 이상	다세대/빌라	1인	고졸
아	여	60대	10년 이상~ 20년 미만	다세대/빌라	1인	무학

2) 인터뷰 대상(방학서클 정회원)의 동네와 이웃에 대한 생각

○ 회원들이 거주하는 동네는 방학1동과 방학2동이었는데, 이 지역은 다세대·빌라가 밀집되고 주거지역과 소규모 상점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 동네에 대해 오래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장점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알고 지내는 이웃이 있는 점, 또한 북한산 자락 아래 위치하여 산이 가깝고, 전 통시장이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음. 단점으로는 이웃들의 거친 성향이나 상점가 주거환경이 편안하지 않다는 부분을 이야기함

동네에 정이 많이 들었어요. 아파트가 많지 않고 편안하고 익숙해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이웃이 주변에 있어서 좋아요. 시장과 병원도 가깝고요. 상점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80대, 여)

아쉽게 생각하는 건 주민들의 분위기에요. 사람들이 좀 거칠어서 생각대로 말하거나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동네에 술집들이 많아 술 문화가 많이 발달한 게 아닌지.(50대, 남)

방학동 좋지요. 집값이 싸고 살기가 편해요. 산이 가까워서 좋고 들레길도 좋고요.(70대, 여)

○ 이웃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질문한 결과, 개인 성향에 따라 회원들의 이웃

관계는 교류가 없는 주민부터 이웃들과 소통을 자주 하는 주민들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옛날 젊었을 적 같이 일하던 친구들도 살고 있어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서울에 60년을 살았는데 공무원, 해외 생활, 이혼, 타지 생활하면서 고향 친구라는 개념이 아예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이웃들 이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원래 커요. 지금 이사 온 방학2동에서도 옆집에 사는 여사분들이 2~3명 정도 있어서 같이 밥을 먹거나 모여서 고스톱을 치기도 해요. 먼저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편이고 거리를 두지 않고 친해지는 성격이에요.(70대, 남)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래가 고참이지요. 새로운 이웃은 많이 생기는데, 따로 교류하지는 않아요.(80대, 여)

이 동네 이웃들은 괜찮은 편이지요. 대화가 잘 통하고 재미도 있어요. 대체로 동네 사람들이 친절해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달라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좀 메말라 보여요.(80대, 여)

- 이웃관계가 소원했다가 교류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음

지금 집에 거주한 지는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교류가 별로 없어요. 같은 빌라 라인 중에 인사하고 지내는 분들은 있어요. 어울려 지내는 분들이 있긴 한데, 개인 성향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다행히 방학서클에서 알게 된 분들은 좋은 분들이세요.(60대, 여)

원래는 이웃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웃이 같이 살아가는 울타리, 정겹다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종종 음식을 나누기도 해요.(50대, 남)

3) 인터뷰 대상(방학서클 정회원)의 활동 현황

- 인터뷰 대상 8명의 방학서클 정회원의 활동 현황 [표 4-2]를 보면, 홍보를 통한 가입과 관계를 매개로 한 가입이 절반 정도로 파악됨. 즉 가입경로는 지인 추천으로 가입한 인원이 3명, 홍보활동에서 설명을 직접 듣고 가입한 인원이 2명, 다다름공작소에 내방해 연결된 인원이 1명, 지나가다가 다다름공작소 앞에 게시된 홍보물을 보고 가입한 인원 1명, 사회복지사 추천으로 가입한 인원 1명으로 나타남

- 활동기간은 6개월 이상~1년 미만 1인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활동한 회원이었음. 방학서클 활동 경험을 통한 변화를 묻기 위한 연구라서 일부 러 지속적인 참여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을 선택함
- 활동 종류로는 뜨개질이나 숲산책과 같은 소모임 활동 8명, 특별활동(영화/공예) 7명, 나누미 없이 회원들끼리 진행하는 동아리 성격의 동네걷기 활동 4명, 골목 청소 봉사활동 4명, 서로 나눔 친구 연결에는 1명이 참여 중이었음
- 이 중 가장 만족하는 활동으로는 소모임 가운데 숲산책이 4명으로 제일 많았고, 동네걷기 2명, 실버체조 2명, 뜨개질 1명, 모두 만족 1명으로 매 주 모이는 소모임 활동이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누미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표 4-2] 방학서클 정회원의 활동 현황

구분	가입경로	활동기간	활동 종류	가장 만족 활동
가	다다룸공작소 내방	1년 이상	소모임(뜨개질, 숲산책)· 봉사서로나눔친구연결·특별활동(공예)	숲산책
나	지인추천	1년 이상	소모임(숲산책)·동아리(동네걷기)	동네걷기, 숲산책
다	지인추천	1년 이상	소모임(실버체조)·동아리(동네걷기)· 특별활동(영화)·봉사	실버체조
라	경로당 홍보활동	1년 이상	소모임(체조)·동아리(동네걷기)· 특별활동(영화)·봉사	숲산책, 동네걷기
마	놀이터 홍보활동	1년 이상	소모임(뜨개질)·특별활동(영화/공예)	모두 만족
바	지인추천	1년 이상	소모임(뜨개질, 실버체조)· 특별활동(영화/공예)	실버체조
사	지나가다가 홍보물을 보고	1년 이상	소모임(숲산책)·동아리(동네걷기)· 특별활동(영화)·봉사	숲산책
아	사회복지사 추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소모임(뜨개질)·특별활동(영화/공예)	뜨개질

4) 인터뷰 대상(방학서클 정회원)의 활동 참여로 인한 변화

- 먼저 방학서클 활동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묻는 질문을 던진 결과, ‘무로 하던 생활에 활동거리가 생김’, ‘건강에 도움’, ‘이웃관계 형성’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답변이 나온

- 건강에 도움

운동하고 활동적으로 변했어요. 머리도 몸도 맑아지고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80대, 여)

규칙적으로 하니 재밌어요. 돌아다니니 활력도 생기고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아요. 혼자서 공원에 나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친밀감이 없어요.(80대, 여)

- 활동거리가 생김

방학서클 활동 전에는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이 컸어요. 집안에서 혼자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잠만 자는 시간을 많이 보냈었죠. 이제는 매일매일 활동들이 있어 활력이 많이 생겨났어요. 매일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삶에 큰 재미가 됩니다.(70대, 남)

- 이웃관계 형성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는 항상 우울하고 고독하고 쓸쓸함을 느꼈는데, 방학서클을 통해서 이웃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50대, 남)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 변화이지요. 주변 지인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상담하기도 해요.(60대, 여)

- 이웃관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는 ‘새로운 관계 형성’, ‘길을 가다 인사할 수 있는 사이’, ‘전화하거나 왕래하는 사이’, ‘작은 먹거리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음

- 새로운 관계 형성

이전에는 동네에 아는 사람, 말 걸 사람도 없었어요. 방학서클 활동을 하면서 이웃 간에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50대, 남)

모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이웃이 많아요. 활동 아니었으면 그냥 남남일

뿐인데 이제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 되었지요.(80대, 여)

- 길을 가다 인사할 수 있는 사이

근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지나가다 뵙고, 인사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로 왕래는 자주 못하지만 자주 뵈니까 반가워요.(60대, 여)

- 전화하거나 왕래하는 사이

넘어져서 아파 집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는 자주 하면서 지내요.(80대, 여)

- 작은 먹거리도 주고받는 사이

지금 소모임은 사람이 많지 않아 서로 친절하게 가깝게 대해서 좋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서로 알기도 어렵고 가깝게 지내기가 어렵지요. 사탕이나 작은 먹거리를 나눠도 고맙게 받고 또 나누니 부담이 없어 좋아요. 모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주민과 친하게 잘 지내고 가끔은 전화도 주고받지요.(80대, 여)

- 한편, 이웃관계의 변화가 크지 않는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전에도 이웃들과 자주 교류하는 성향이 있던 회원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방학서클 참여 1년 미만으로 살아온 환경이 매우 달라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단계라고 하였음

2. 방학서클협동조합 조합원 인터뷰 결과

1) 인터뷰 대상(조합원)의 방학서클 활동 이후 변화

- 방학서클 활동을 1년 넘게 함께 해오면서 조합 설립과 함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조합원에게 활동 참여 이후 어떠한 생활이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함. ‘동네에 아는 어른신이 생김’, ‘내 가족 외의 주변을 살핌’, ‘마을에 관심’ 등으로 표현함

- 동네에 아는 어른신이 생김

제가 방학서클을 하기 전에는 동네에 아는 어른신이 거의 없었어요. 서클 활동하면서 유대관계가 생긴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오가며 마주치니 웃으면서 인사하게 됐어요.(50대, 여)

길을 가다 아는 어르신을 만나 서로 인사도 하니 좋아요. 개인적으로 어르신께 전화하는 일도 생겼어요. 더불어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60대, 여)

- 내 가족 외의 주변을 살핌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저보다 환경이 열악한 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어요. 제가 교사로 일했던 것을 아시는지, 종종 상담할 일이 생겨요. 어느 날, 회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산길을 타면서 상담해주었는데 산을 내려오니 다행히도 두 분 관계가 풀어졌어요. 상담해드린 저도 참 좋더라고요.(60대, 남)

- 마을에 관심

서클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관심이 생겼고,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길을 가다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언니 부부가 60대 중반을 넘어서고, 기초연금을 받는데요, 언니를 비롯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어요. 특히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께 방학서클을 알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사회복지한다고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50대, 여)

2) 인터뷰 대상(조합원)의 방학서클협동조합 설립 이후 변화

○ 방학서클협동조합 임원으로 역할 하면서 조합원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비슷한 답변을 확인함

- 첫째, 방학서클협동조합원으로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증가함

직장이 아주 멀어서인지 지역사회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퇴근 후 식당가는 정도였죠. 베드타운 같았습니다. 이젠 소속감이 생기고 지역사회에서 나의 위치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일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주변의 간판 하나라도 주의 깊게 보게 되고, 가게가 잘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60대, 남)

관심 분야가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지요. 그전에는 내 일, 교회 일만 봤는데, 마을이란 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살기 좋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50대, 여)

- 둘째, 조합 임원으로서 책임감이 생김

이사를 맡으면서 책임감이 생겼어요. 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업 아이템을 잡아야 하는데 아직 뚜렷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니다. 자주 생각하고 고민 중입니다.(60대, 여)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같이 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좋아요. 우리가 힘을 잃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요.(50대, 여)

- 셋째,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거나 배움의 욕구가 커짐

집중할 일을 찾으면서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시간 관리, 조합원들과의 만남이 생활패턴이 되었어요. 남는 시간에 오가며 취미생활하는 것보다 일이 있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요일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하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게 좋아요.(60대, 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공부를 더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올해 사 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육도 듣다 보니 전문용어가 들리더라고요. OO쌤도 활동가로 잘 하는 것 같아서 공부하라고 제안했어요. 다 관계가 되는 거 같습니다. 나의 재능을 나누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관심이 생기니까 눈에, 귀에,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50대, 여)

3. 방학서클 활동지원 사회복지사 인터뷰 결과

1) 방학서클 활동지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 방학서클 사업을 초창기부터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3인의 자신이 생각하는 사업 내 주요 역할을 질문한 결과, 주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연결자, 주민 조직가로서 역할을 한다고 비슷한 답변을 확인함

(이웃관계망 형성) 회원들의 방학서클 소속감과 더불어 회원 간 관계 만들기가 주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역할에 앞서, 방학서클을 보다 체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 기본을 다진 뒤에는 회원들이 마을에서 서로 돌보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이웃 관계망이 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사회복지사)

(주민 조직가) 주민을 모집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알게 연결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단단히 맺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동네건기, 숲

산책 활동의 경우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참여자 간 유대감이 깊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서로를 끈끈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기존과 같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뀌거나 순환되면 유대감의 정도가 확연히 떨어졌습니다.(C사회복지사)

(지역사회 돌봄 자원화) 지역사회에 돌봄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과 주민 주체성, 주민이 운영하는 자원,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에 그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A사회복지사)

2) 방학서를 활동지원에서 어려운 점

- 방학서를 활동의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나 고민점이 분명히 존재함. 이에 대한 답변으로 활동 내용,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 물적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세대별 맞춤 활동 개발) 50대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만큼 각 연령대 별로 관심사나 참여 가능한 활동 영역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대/60대/70대 등 각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도 있지만, 또 각 세대별 관심사에 맞춘 활동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A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역량 투입) 방학서에 참여자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이다 보니 능동적으로 모임에 참여해 본 경험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실무자가 어르신들과 소모임 내에서 관계 맺으면서 촉진가로서 많은 시간과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조 모임의 형태로 잘 전환되지 않고 여가 모임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규모 집단의 촉진을 위해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수의 모임을 만들고 지원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C사회복지사)

(중고령 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의 역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어르신 역시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고 사유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죠. 경로당의 경우 실무자가 상주하지 않고 심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리가 생기거나 일종의 텃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시 관리되는 오픈된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C사회복지사)

제2절 방학서클 활동의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시사점

1. 이웃관계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

- 방학서클의 주요한 특징은 힐러리 코탐의 영국 서클(Circle) 사례를 벤치 마킹하여,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에 필요한 핵심역량 가운데 ‘공동체’, ‘관계’에 주목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임
-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돌봄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이웃관계망 형성이 중요한데, 방학서클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학서클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
- 일상에 활력을 주는 이웃관계 중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봄

걸음을 걷다 보면, 건강해져서 좋고 이웃들과 소소하게 교류하는 게 좋아요. 2021년에는 숲산책에 참여했었는데 고관절이 아파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고 동네걷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등산이 최고로 좋지만, 동네 걷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걸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다.(50대, 남, 동네걷기 참여회원)

‘이웃이 생겨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얘기하던 회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전에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만 하였던 주민들이 방학서클 활동을 통해 집 밖으로 나오게 되고, 골목골목에서 마주치는 얼굴을 아는 이웃들이 생겨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B사회복지사)

공공의 영역이 모두 메울 수 없는 복지의 공백을 주민을 통해 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방학서클 소모임에 참여한 주민들끼리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종종 만나서 같이 식사하거나 옷을 사러 갈 때 도움을 받는 등 일상에서 간단한 도움을 주고받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돌봄은 관계망과 정서 측면에서 물질적 자원이 채워주지 못하는 결핍을 예방 또는 충족할 수 있고 간헐적으로 위기 상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회원 한 분이 장염으로 앓아누웠을 때 다른 회원들로부터 연락받기도 했습니다.(C사회복지사)

- 위 내용에서 방학서클의 소규모 관계 중심 활동은 모임 외 일상에서도 관계가 이어지면서, 상호 돌봄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공

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방학서클은 저소득 어르신부터 소득이 있는 중장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A사회복지사)

방학서클은 선별적 복지보다는 주민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복지로, 일반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대상일 수 있습니다.(50대, 여, 조합원)

- 한편, 기존 복지시스템의 주 대상이 저소득, 수급권자 중심으로 지원되던 사업에서, 방학서클은 연령 기준만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활동으로,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음.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보편적 복지의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함

2. 주민참여 지원조직의 존재

- 방학서클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고령층 중심의 회원조직을 지원할 50+세대(50~60대) 중장년층을 지원조직을 구성했다는 점임.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은 사회복지사나 강사나 완전한 동아리 형태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됨
- 그러나 방학서클 사업은 사전 교육을 마친 일반 주민이 마을활동가로서 지원조직을 구성한 점이 유의미함. 활동 초기인 2021년에는 스텝이란 이름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나누미로 활동하고 있음

노인 세대를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을 사회교육 프로그램 방식으로 외부 강사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 주민 강사(나누미)를 역량 강화하여 세우고, 그들이 주민과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그것이 나누미 자신의 돌봄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 짓고 협동조합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A사회복지사)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저희가 도움을 주는 활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들이 동네 구석구석 막 뛰어다니지 않으면 탁상공론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르신들 곁에서 돌아보면서 애깃거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50대, 여, 조합원)

- 방학서클 소모임에서 나누미는 기본적으로 모임 진행과 모임의 역동을 살피며, 모임 내 회원들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임. 특히 모임별로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 회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저조할수록 나누미가 하는 역할은 커진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소모임 중 신체적으로 활동성이 가장 큰 숲산책 모임은 나누미가 부재한 경우에도 동아리 성격을 띠고 모임이 수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던 반면, 뜨개질이나 실버체조와 같이 기술을 요하는 경우, 나누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OOO 나누미 선생님 너무 좋으시고, 회원분들이 전부 좋아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분 안 나오시면 재미가 없어 해요. 꽃이나 식물에 대해 설명을 잘해주시고, 숲산책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60대, 여, 회원)

나누미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끼리 만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내 일이다' 생각하고 참여합니다.(70대, 여, 회원)

3. 50+세대의 돌봄 분야 협동조합 조직

- 무엇보다 돌봄 활동을 주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조직화가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복지관이, 50~60대에 주목하여 돌봄 주민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조합 설립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방학서클협동조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복지관에서 만났던 다양한 주민 리더들의 성장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돌봄 욕구가 있는지 조사해보거나, 맞춤 돌봄을 제공하거나, 모임의 강사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관에서 마을 활동 경험을 쌓아왔던 주민들이 지역사회 '서로 돌봄'을 위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큰 성과입니다.(B사회복지사)

방학서클협동조합의 시도는 지역주민 주도 돌봄 사업의 실험이라 생각하고 조합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방학서클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추후 도봉구 주요 민간 돌봄 단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C사회복지사)

- 방학서클협동조합은 아직 구성 초기로 내부 역량을 다지는 시기라고 보

임. 무엇보다 지역사회복지관이 의도적으로 커뮤니티 케어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으고(관심이 없다가 활동하면서 생기는 사례 포함) 2년 이상 꾸준히 만나면서 활동의 방향성을 만들어 온 지점이 조합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제3절 발전과제

○ 지금까지 50+세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노인 커뮤니티 케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방학서클 활동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봄. 이와 함께 향후 발전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함

- 첫째, 방학서클 사업 참여 주민(회원, 나누미)의 역량개발을 통한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함.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발굴을 위한 홍보와 사전 교육, 기존 조합원 교육과 내부 워크숍, 사례탐방을 통한 동기부여 방식이 있음

‘집중’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5명의 실무자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에는 방학서클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회원들과의 관계, 나누미들의 역량 강화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B사회복지사)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지 지금은 50+세대가 사회의 허리입니다. 40대는 아이들 학업에 신경 써야 하고, 50+세대는 안정기를 찾아가는 시기라서 지역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자원봉사도 일도 하고 싶는데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허튼 데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회를 주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합이 갖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B어르신복지관 실무자)

현재 지역사회에 특별히 기여는 하지 않지만,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학동은 재미있는 마을, 소외된 사람 없이 즐겁게 잘사는 마을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아닌 유대감으로 위화감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50대, 여, 조합원)

- 둘째, 50+세대 중심의 돌봄 주민 주체로서 조합 정체성 확립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분야의 일자리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잘만하면 어르신들께 좋고,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도봉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이의 창출해서 어르신, 어려운 분들과 나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조합이 상생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60대, 여, 조합원)

커뮤니티 케어는 재원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반(半)자원봉사적 돌봄 제공인력이 필요합니다. 1980년대 이탈리아 정부의 복지서비스 체계 붕괴 시 자원봉사 조직의 활동을 통한 최소한 돌봄서비스 제공 사례⁸⁾를 참조해 볼 때 방학서클은 우리 사회에서 자치구 동 단위 서로 돌봄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J센터 실무자)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연계하여 돌봄 네트워크 단체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공의 복지체계가 위기나 문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방학서클협동조합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예비적, 예방적 성격의 복지체계의 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C사회복지사)

- 그동안 커뮤니티 케어 영역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집단의 역할에만 주목하였다면, 방학서클은 주민들 특히 50+세대의 돌봄 활동 참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로, 비전문적 활동거리에서 지역사회 일거리로 도약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지역사회 기여에 관심이 큰 조합원들의 사회적 활동을 체계화하여 돌봄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유관 단체들의 협력이 요구됨

8) 이탈리아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로,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래, 수적으로 연평균 10~20% 정도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왔고, 이탈리아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함

제5장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50+세대를 중심으로 관계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학서클 사례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이웃관계 형성 활동이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 의미들을 찾아보는 것임
- 우선 기초조사와 방학서클 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자료를 검토한 후,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여 대상별 인터뷰를 진행함
 - 방학서클 사례 특징
 - 방학서클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을 중심으로 50세 이상 주민들의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를 지원할 돌봄 주민 주체로서 방학서클협동조합까지 조직한 사례임
 - 도봉지역 노인 커뮤니티 케어 현황
 -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게 나타나, 이에 따른 최근 3년 사이 노인복지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함. 눈에 띄는 특징은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보편적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시민사회의 발달과 민관협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임
 - 방학서클 참여자와 관계자 인터뷰 결과
 - 방학서클 참여로 인한 주요 변화로는 ‘건강에 도움’, ‘활동거리가 생김’, ‘이웃관계 형성’으로 답변하였고, 이웃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관계 형성’, ‘길을 가다 인사할 수 있는 사이’, ‘전화하거나 왕래하는 사이’, ‘작은 먹거리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까지 있었음
 - 조합원의 방학서클 활동 이후 생활 변화로는 ‘동네에 아는 어른신이 생김’, ‘내 가족 외의 주변을 살핌’, ‘마을에 관심’ 등으로 표현함
 - 조합원의 조합 설립 이후의 변화로는 ‘임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김’,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거나 배움의 욕구가 커짐’,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관

심이 증가한 것으로 답변함

- 방학서클 활동 지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연결자, 주민 조직가 역할을 한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어려운 점으로는 사회복지사로서 개별 주민에 대한 역량 투입이 상당한 점, 맞춤형 활동 개발, 지역 내 활동 공간 확대에 대해 언급함
- 방학서클 활동의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시사점
- 첫째, 이웃관계 중심의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이라는 점으로, 방학서클에 참여는 모임에서 만난 사이가 모임 외 일상에서도 소통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었음
 - 둘째, 지원조직의 존재로서 활동 주체 역시 사전에 교육받은 주민이라는 점임. 방학서클은 고령층 회원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적 개입보다는 낮은 수위의 돌봄 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셋째, 이러한 돌봄 주민 주체가 자원봉사 모임으로 그치지 않고, 중장년층이 주축이 되어 예상보다 빠르게 일반협동조합으로 조직됨. 50+세대는 노년기를 앞둔 세대인 만큼 개인적 동기부여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음
-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마을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이번 연구를 통해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란 4대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웃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를 실행하는 주민 주체로서 ‘50+세대’의 역할과 자리를 살펴볼 수 있었음
-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을 기대하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중장년층의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향후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더불어 커뮤니티 공간, 자원공유와 같은 물적 토대 마련도 요구됨. 특히 도봉지역은 고령친화도시로 재인증받은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방학서클 사례는 돌봄 공동체 형성 활동의 의미를 찾아보는 경험적 연구 과정이었음. 향후 관계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추진하는 유사 조직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당사자 연구의 의미를 확장해보길 기대함

참고문헌

■ 단행본

힐러리 코탐. (2018). 박경현, 이태인 (역). **래디컬 웰프; 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 착한책가게.

■ 논문

강현철, 최조순. (2019). 지역사회를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1(1), 39-54.

곽현근. (2013).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주거관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237-267.

김영란, 송치선, 이철선. (2013). 지역연대에 기초한 노인1인 가구 돌봄 지원 방안: 돌봄 노인공동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용득. (2018). 탈 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8, 492-520.

김운영, 윤혜영. (2018). 커뮤니티 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비판사회정책**, 60, 135-168.

김은정. (2015).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153~176.

김정희, 박지영. (2015).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10-222.

김희수. (2019). 커뮤니티 케어 추진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관 발전방향 모색: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8, 99-129.

민연경, 이명석. (2014). 노인복지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 227-254.

변정원. (2009). **지역사회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노인복지 기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서종녀, 하성규. (2009). 공동주택 커뮤니티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 분석. **國土計劃**, 44(2), 183-193.

서현보. (2020). 노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소규모 비공식 이웃관계 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40(1), 297-330.

- 신명호. (2012). 사회복지관에서 주민운동은 가능한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35(2), 69-99.
- 이미란. (2019). 재가노인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 여가활동 연구. **(사)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3), 685-694.
- 이수연, 이귀옥. (2020). 복지기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사회복지연구**, 51(3), 95-116.
- 정주영, 이미란. (2021). 연령별 은퇴자의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중소기업융합학회·융합정보논문지**, 11(3), 205-211.
- 전용호. (2012). 영국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7, 1-24.
- 조미정, 박태영. (2016). 재가노인 사례분석을 통한 돌봄 체계 강화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13-138.
- 한동우. (2013). 지역기반의 복지공급체계: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네트워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3), 265-311.
- 홍종원. (2021). **148마을 건강주민운동 사례를 통한 커뮤니티 케어 발전방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 Hand, C., Laliberte Rudman, D., Huot, S., Pack, R., & Gilliland, J. (2020). Enacting agency: Exploring how older adults shape their neighbourhoods. ***Ageing and Society***, 40(3), 565-583.

■ 기타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21). **2021 로컬렘동네발전소 실행사업계획서**.
- 도봉구청기획예산과. (2020). **2018-2019 도봉백서**. 도봉구.
- 도봉구청기획예산과. (2022). **2020-2021 도봉백서**. 도봉구.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2020).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 이순성, 마정옥, 양재석, 허예진. (2020). **서울시 노인돌봄체계 기초 연구: 노인맞춤돌봄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복지재단 2020-55). 서울복지재단.
- 안기덕, 김세림, 공예지. (2021). 서울형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연구-복지관의 지역사회돌봄 (Community Care)을 중심으로 (서울복지재단 2021-29). 서울복지재단.

■ 참고사이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22). seoul.go.kr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22). kostat.go.kr

고령친화서울. (2022). <https://afc.welfare.seoul.kr>

서울시50플러스재단 당사자연구 이슈페이퍼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이희승
편집인	황윤주
책임자	권현진
연구자	김희경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대)

이 책의 판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연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2022년 50+당사자연구 이슈페이퍼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수행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인용할 시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한 '2022년 50+당사자연구 이슈페이퍼 공모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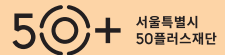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매품/무료
93330



9 791192 538129

ISBN 979-11-92538-12-9



- 1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50+부모의 고령화와 노후준비
- 2 50+세대 마을강사의 진로구성 경험 연구
- 3 50+세대 여성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가이드 개발 연구
- 4 50+세대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자기자비 기반의 음악치유 프로그램 개발
- 5 COVID-19 이후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경험 연구
- 6 서울시 50+세대의 노후준비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은퇴자 특성 연구: 누가 행복한 은퇴자인가?
- 7 중장년 노후준비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 8 코로나 팬데믹 시대, 50+시니어 여행제약과 협상 과정 연구
- 9 50+세대 이웃관계 형성 활동의 노인 커뮤니티 케어 기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방학서클 사례를 중심으로
- 10 50+세대는 누구인가? : 20년간의 주관적, 객관적 변화 궤적
- 11 서울시민 '삶의 질(quality of life)' 제고를 위한 서울형 행복지수 체계 관리 방안 연구